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The 20th National Youth Para Games × The 55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함께 뛰는 미래
”



2026
BUSAN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The 20th National Youth Para Games

5.12. 화 — 5.15. 금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5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5.23. 토 — 5.26. 화

부산체육

2026. 04 Vol. 89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Vol. 89
2026. 04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 하키향회 김희준 회장

푸른 바다, 큰 꿈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종목 소개
소프트테니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4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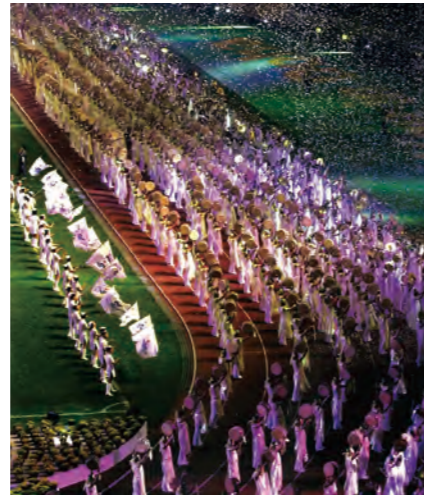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04 Vol. 89



영정의 부산체육



정상을 향한 질주



최고의 체육문화



GO! 우리 함께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 하키협회 김희준 회장
08	금빛 훈련일지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12	부산체육을 잇다 수영구체육회
16	푸른 바다, 큰 꿈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20	Sports is Busan - 제5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 - 러너들의 새로운 성지,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오픈
24	스포츠&테크놀로지 스포츠 멘탈 관리, 이제 선택 아닌 필수
28	스포츠&웰니스 자전거 탈 때 챙겨야 할 안전 수칙
30	부산체육 DNA Ready, Set, Go 부산, 글로벌 메가스�포츠의 중심이 되다

34	스포츠 기자단 -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 개최 - 경남여중 배구부, 2년 연속 부산 대표 선발
38	종목 소개 소프트테니스
42	스포츠&컬처 영화 <머니볼>

44	BSC 뉴스 -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해단식 개최 - 2026 부산-정주 청소년 스포츠 교류 실행협의회 진행 - 부산스포츠과학센터, '2025년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평가' 우수 기관 선정
48	회원단체 소식
52	센터 info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56	부산체육 퀴즈

부산 하키, 탄탄한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부산광역시 하키협회 김희준 회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치열한 법정에서 활약하는 김희준 회장.

그는 이제 하키협회의 수장으로 기꺼이 필드 밖 조력자를 자처한다.

화려한 스틱 기술과 화려한 스피드에 매료된 그는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선수 중심'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다지며

부산 하키의 전성기를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그의 진솔한 행보를 따라가 본다.

건강 적신호 앞에서 결심한 사회공헌, 하키와의 운명적 만남

부산광역시 하키협회 김희준 회장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법조인이다. 본업만으로도 바빠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기꺼이 협회장직을 수락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 “시험 합격한 게 2015년도니까, 변호사 생활한 지도 11년이 넘었네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2023년 겨울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테니스공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발 암만 아니라. 건강만 회복된다면 사회에 기여하고 착한 일도 많이하겠다’ 빌면서 다짐했어요. 다행히 종양은 암이 아니었고 수술 전의 다

짐을 행동에 옮기게 됐죠.”

과거 부산광역시체육회와의 인연이 있었던 그는 당시 해양스포츠클럽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하키 종목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가족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에 가뭇일을 더한다고 하니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그는 앞서 했던 결심을 번복하지 않았다.

> “다행히 협회 직원분들과 임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능숙하셔서 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낼 수 있었어요. 건강에 무리 안 가도록 조심하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걱정을 좀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하키팀

호쾌, 섬세, 역동. 하키팀의 매력

김 회장은 한국 하키가 올림픽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던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금은 하키 인기가 예전같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망 종목으로 분류됐어요. 올림픽 메달도 따고 아시안게임에선 늘 금메달을 기대하던 종목이었죠. 그 시절 하키가 왜 그리 인기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특유의 호쾌함 때문인 것 같아요.”

축구와 같은 필드 종목인 하키는 축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축구는 기동과 볼 처리를 모두 발로 하기 때문에 테크닉을 발휘하기 쉽지 않지만, 하키는 기동과 볼 처리를 각각 하체와 상체로 하는 덕분에 볼 컨트롤과 슈팅이 섬세한 동시에 역동적이다. ‘속도감과 화려한 스틱 기술이 짜릿함을 선사하는 운동’이라며 하키의 매력을 전하는 김 회장의 눈이 유독 반짝인다. 본인이 격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탓에 하키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다.

대한민국 하키의 ‘종가’, 부산의 자부심을 잇다

김 회장이 이토록 하키에 진심인 이유는 부산이 가진 특별한 상징성 때문이다. 부산은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하키의 ‘메카’이자 ‘종가(宗家)’로 불려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

임 등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은 지금도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하키의 가장 큰 자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인 ‘강서하키키경기장’과 ‘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입니다. 원로들의 깊은 지도력과 젊은 지도자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부산 하키인’이라는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선수들, 선수를 중시하는 협회

2025년, 부산외대 남자 하키팀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곳곳에서 전해오는 축하에 김 회장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 공을 선수들과 감독에게 돌린다.

“선수들과 감독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진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끔 저를 추켜세우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서 민망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평가는 다르다. 김 회장이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과 감독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현장 관계자는 하키팀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여쯤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힌다. 선수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협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 선수들이 기운을 얻는다는 것이다.

“우리 협회는 항상 선수 중심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간섭이나 요구를 하지 않고 오롯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자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 뿌듯합니다.”

아울러 협회는 자생력 있는 엘리트 육성,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는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고 동호인 클럽과 학교 체육을 연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국제 교류나 전지 훈련을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점. 즉, 겨울에 비교적 따뜻한 점을 활용해 해외 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고 타 시도 팀들이 부산으로 훈련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 합니다. 23년 만에 보수한 강서구장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하키키경기장인 만큼, 협회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키인들을 향한 든든한 약속

끝으로 김 회장은 부산 하키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틱 하나로 맺어진 여러분의 열정이 곧 부산 하키의 미래입니다.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동호인 여러분 모두가 우리 협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생각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 하나로 자리를 지켜주는 하키인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필드 위의 모든 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스틱을 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법조인으로서의 삶이 치열한 공방의 연속이라면, 하키팀회장으로서의 삶은 따뜻한 공감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며 다짐했던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협회의 정책이 되고, 선수들의 땀방울이 가치 있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필드 곁을 지키겠습니다. 부산 하키가 다시 한번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할 때까지, 제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하키팀

마침내 이룬 남자 소프트테니스팀의 꿈, 이제 메달로 증명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부산진구는 부산지자체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남자 소프트테니스팀을 지난 3월 창단했다. 소프트테니스를 향한 열정으로 뭉친 6명의 선수와 이금섭 감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이 그 주인공이다. 사하구에서 1992년부터 여자팀이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창단은 의미 있는 출발로 평가된다. 이들의 목표는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이다. 흘날리는 벚꽃도 뒤로한 채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는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의 훈련장을 찾았다.



소프트테니스 외길 인생, 이금섭 감독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을 이끌고 있는 이금섭 감독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산 지역 소프트테니스의 발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감독은 부산에서 소프트테니스의 발전과 선수 육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개성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동아고등학교, 동산유지공업 직장운동경기부까지 소프트테니스 선수로 활동한 이 감독은 2003년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와 인연을 맺은 뒤 본격적으로 소프트테니스 전도사로 나섰다.

“부산 사하구청에서 34년째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자 선수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역에 팀이 없어 대학 졸업한 선수들은 진로까지 막막한 상황이었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소프트테니스만을 바라보고 운동해온 학생들을 위해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협회장님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에 힘입어 부산에서 남자소프트테니스팀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부산진구의 적극적인 의지로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창단이라는 값진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4살 막내 선수부터 부산 소프트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안겨줬던 37살 베테랑까지,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선수들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전국체육대회와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등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실력자들이 모였다.

“창단 첫째 목표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입니다. 복식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김민홍, 정영만 선수와 경력이 풍부한 김만열 선수가 이끄는 복식조를 중심으로 개인전 복식과 단체전을 노립니다. 훌륭한 기량의 선수들을 믿고,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코트를 지휘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합을 맞춘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선수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눈치챌 정도로 가까워졌다.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이들은 오전 8시 30분에 훈련장에 모여 오후 6시까지 쉬는 시간도 줄여가며 소프트테니스 연습에 매진한다. 시즌에는 기술 훈련에 집중하고, 비 시즌에는 체력 훈련을 진행한다.

“탕- 탕-” 하얀 소프트테니스 고무공이 바닥 치는 소리만이 가득한 훈련장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연습 자세를 고쳐주는 이금섭 감독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향한다.

“제가 운동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지도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로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때때로 물리력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지금은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엄하게만 선수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감독이 되고 나서부터 항상 선수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농담도 많이 하고, 경기 때는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금섭 감독은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의 성적만큼이나 생활체육으로서 소프트테니스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다.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부흥은 구민들의 애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에서다.



“어렵게 창단한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은 성적을 내는 것만큼이나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선수들이 재능 기부식으로 동호인들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테니스는 아흔이 넘은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소프트테니스의 매력에 빠지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주장이 짙어진 무게, 김만열 선수

대구 달성군청과 순천시청, 부산광역시체육회를 거쳐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에 합류하게 된 김만열 선수는 경력 26년 차의 베테랑이다.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에서는 주장을 맡고 있는 김 선수는 팀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운동하다 보면, 감독님이 쓴소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감독님이 채찍을 드실 때, 저는 선수들에게 당근을 건넵니다. 저까지 언성을 높인다면 팀 분위기가 무너져 버리기 쉽거든요. 제가 대신 욕을 먹더라도 팀원들이 기죽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훈련이 끝난 후에는 동료들의 개인 생활도 존중합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코트 위에서의 결과에 대해 선수가 오롯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힘!

큰형 김만열 선수는 실력으로도 모범이 되는 선수다. 김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이던 지난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 복식 금메달을 따냈다. 부산 지역 소프트테니스 선수가 86년 만에 획득한 전국체육대회 첫 번



째 금메달이었고, 당시 3명으로 운영되던 팀에서 거둔 기적 같은 성과였다.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이 창단하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실력 좋고 든든하기까지 한 팀 동료에, 팀 차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도 생겼어요. 이제는 정적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2년 전 금메달을 따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김 선수는 인터뷰 내내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가다 운동선수로서의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 ‘가족’이라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부산으로 이적하며 주말부부가 됐어요. 제가 없는 동안 삼남매를 케어하며 제 뒤통까지 해내는 아내를 생각하면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올해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꼭 선물하고 싶어요.”

돌고 돌아 다시 소프트테니스로, 정영만 선수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우승 2회, 개인전 우승 1회. 화려한 이력을 소유한 정영만 선수는 소프트테니스 선수로서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 같지만,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으며 4년 동안 코트를 떠난 바 있다. 당시에는 운동을 완전히 접겠다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에 취직하기도 했지만, 자의가 아닌 부상으로 그만둔 소프트테니스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길이 없었다. 그렇게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복귀를 꿈꿨다. 그러나 현

김만열 선수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 안은정 단장

부산진구는 생활체육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체육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소프트테니스는 생활체육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 남자 일반부 직장운동경기부가 없어 선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산진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체육팀을 창단함으로써,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은 이금섭 감독과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돋보이고, 젊고 역동적인 선수 구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단 첫 해인 만큼 올해는 팀 조직력과 경기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목표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입니다. 앞으로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이 지역을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전국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산체육』 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냉혹했는데, 그때 정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유일한 사람이 이금섭 감독이었다.

“운동선수가 다치면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포기하려던 찰나 이금섭 감독님께서 ‘믿어보겠다’라며 기회를 주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독의 믿음과 선수의 열정이 만났기 때문일까? 정 선수는 복귀 후 5개월 만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개인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개인전을 넘어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전진

올해 서른 하나, 정영만 선수의 최종 꿈은 국가대표다.

“모든 운동선수의 꿈은 국가대표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테니스의 경우 서른셋 정도까지 전성기

로 봐요. 경기 운영이나 심리전 등 노련함이 필요한 종목이라 선수 생명이 긴 편이죠. 올해 초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은 아쉽게 날렸지만, 스스로를 믿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국가대표를 향한 도전은 사실 개인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 소속팀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은 동료들에게도 자극이 된다.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은 경험 많은 선수가 대부분이지만, 대학 졸업 후 실업팀에 처음 합류한 병아리 선수들도 있다. 선수로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정 선수의 도전은 눈앞에서 보는 생생한 교과서인 셈이다.

“나이 많은 형들이랑 운동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버겁기도 할 텐데 기특하게도 어린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부산진구 소프트테니스팀은 동고동락하며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팀이잖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영만 선수



아름다운 자연과 다이나믹한 스포츠가 공존하는 건강 도시, 수영

수영구체육회

SUMMER FRONT-TO



SUP 프로그램, 가족사랑 걷기대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는 수영구체육회. 수영구체육회는 오늘도 스포츠가 공존하는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기찬 에너지를 전하고 있다.

Q 수영구체육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 통합 체육회로 출범한 이후, '접근성', '지속성',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회원종목단체와 255개 클럽 3,2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스포츠로 건강한 수영!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Q 수영구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수영구민 가족사랑 걷기대회'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출발해 민락수변공원을 거쳐 수영강변을 따라 걷다가 정과정유적지를 지나 수영사적공원에 도착하는 코스를 걷게 되는데, 주로 가을에 진행하여 건강 증진과 더불어 운치 있는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돼 해마다 1,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가, 탁구, 필라테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동호인 체육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Q 수영구체육회의 대표적인 회원종목단체를 소개해주세요.

탁구와 배드민턴 종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종목은 무려 18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영구배드민턴협회장배 대회와 수영구청장배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장배 대회는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는 ‘제1회 여성부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 종목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수영구체육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근력·스트레칭 수업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는 체육 활동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진행합니다. 현재 근력·스트레칭 수업은 60~8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수영구체육회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SUP 프로그램입니다. SUP는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난 해양스포츠로,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여성 특화 프로그램 등 수영구체육회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SUP는 수영구를 대표하는 스포츠인 만큼 구청장배 대회를 비롯해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영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수영구체육회도 이에 발맞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수영구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수영구는 지역의 한계로 체육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학교 등 여러 기관에 협조를 구하며 대체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양한 종목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구에는 유휴 부지가 없어 이러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비콘그라운드가 위치한 고가도로 아래에 파크골프 실내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수영구가 순위에 든 종목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는데, 시설 및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올해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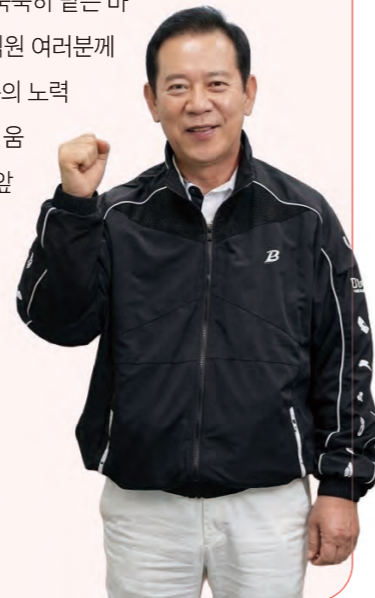
Q 생활체육을 즐기는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름다운 자연과 다이내믹한 스포츠가 공존하는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고, 구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체육회 회장 황대성입니다.
저는 성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생활체육을 가까이에서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다 체육회 활동을 통해 친목회장과 민선 1기, 2기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회장을 역임하며 많은 일이 있었는데, 회원종목단체 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발생한 갈등을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체육회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30개 회원종목단체 중 제가 즐겨 하는 종목은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즐길 수

mini interview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영구체육회는 체육 활동을 넘어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체육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시민, 활기찬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수영구체육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며,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플리레 국가대표 유망주의 산실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1990년 창단 이후 오랜 세월 '펜싱 명문'으로서 부산 펜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오는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자 전력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을 만났다.



36년 중 29년 6개월이라는 시간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윤정숙 지도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는 펜싱부의 30여 년이라는 역사에 무려 29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199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곳이 이곳이고 올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요. 펜싱 플리레 국가대표로 88 올림픽을 뛰었고 10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심판을 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펜싱이 좋아서 경기도 자주 보러 다녔는데, 협회의 추천으로 재송여자중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그냥 묵혀두기보다 선수들에게 알려줘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가 지도자로 부임해 가르친 선수 중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사브르 종목의 금메달리스트 김지연 선수와 유소년 국가대표 구차빈 선수 등이 있다. 최근 졸업생들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구차빈 선수는 종종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지도하며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윤정숙 지도자는 졸업한 제자들의 경기를 일일이 챙겨보진 못하지만,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 구차빈 선수도 그 마음을 알기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춘 지도법의 변화

윤정숙 지도자에게는 ‘단 하루라도 펜싱 칼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철칙이 있다.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의 단호함이 선수들의 훈련 강도를 짐작케 했다. 실제로 과거 그는 조금은 강압적으로, 소위 말해 스파르타식으로 지도했었다고.

“전문체육인이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가르쳤던 것도 있습



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순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도법을 바꾸었어요.”

성실함을 강조하는 그의 철칙에는 변함이 없다. 방과 후 3시간 정도의 반복 훈련과 방학 중 하루 6시간 이상의 집중 훈련은 기본이다. 다만, 선수들과의 소통이 전보다 훨씬 늘어났고 깊어졌다. 수십 년간 선수를 지켜본 그이기에 이제는 표정만 봐도 선수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다 보니 상황에 맞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여기서 신경 쓴 부분은 이런 대화를 가능한 일대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선수들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서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선수들을 믿고 어느 정도 자율적인 훈련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큰

변화였다. 그렇게 지도자와 선수 간 신뢰가 쌓이자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학교와 협회의 든든한 뒷받침

현재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는 3학년 4명, 2학년 5명, 1학년 1명으로 총 10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3학년 선수 모두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 선수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는 건 부모, 지도자, 학교, 협회, 지자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펜싱은 장비가 고가라 경제적 부담이 큼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그런 부담이 거의 없어요. 학교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지원 덕분에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팀을 믿어주시는 거라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정확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플뢰레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는 수 싸움이 핵심이다. 수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전 감각이 큰 도움이 되는데, 재송여자중학교 펜

싱팀은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대회에 출전하여 경험을 쌓고 있다. 선수에게 실력과 성장 가능성만 있다면 뒷받침은 어른들의 몫. 학교는 펜싱부 전용 펜싱장까지 마련했다. 윤정숙 지도자 역시 퇴임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우리 선수들은 인성이 참 훌륭해요. 인성은 결국 뛰어난 실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앞으로도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팀, 경쟁력 있는 팀이라 평가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니 인터뷰

Interview

정호석 교장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는 부산 지역 유일의 여자 중등부 플뢰레팀으로서, 오랜 전통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지역 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건강한 체력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믿고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와 교사가 긴밀한 협력으로 운동과 학업의 균형을 맞춰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학생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별도의 학습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용 펜싱장을 구축하여 훈련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송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을 믿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주은 선수 · 3학년, 주장

Q. 펜싱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언니가 펜싱 클럽에서 훈련하는 걸 보고 멋있어서 따라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는데, 클럽이 문을 닫는 바람에 잠시 쉬었다가 6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선수로 운동하게 되었어요.

Q.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활기차고 웃음이 넘쳐요. 시합 결과가 좋지 않을 땐 가끔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지만 금방 다시 좋아집니다. 저랑 친구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개그를 많이 하는데, 다들 잘 웃어줘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Q. 플뢰레 종목의 매력과 자신의 강점을 알려주세요

플뢰레는 몸통만 유효면이다 보니 집중력과 높은 지능이 필요해요. 특점이 쉽지 않은 만큼 점수를 냈을 때의 쾌감이 큰 게 매력입니다. 저의 강점은 콩트르 아따끄(역공격)예요. 저만이 가진 독특한 리듬감이 있어서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펜싱은 왼손으로 익혔어요. 열심히 훈련한 덕분에 이제는 왼손잡이나 다름없을 정도예요. ‘왼손잡이 펜싱 유망주’로 고등학생 때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Q. 펜싱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쿄 올림픽에서 김준호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어머니께 펜싱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비용 문제로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6학년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제 진심을 보시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Q.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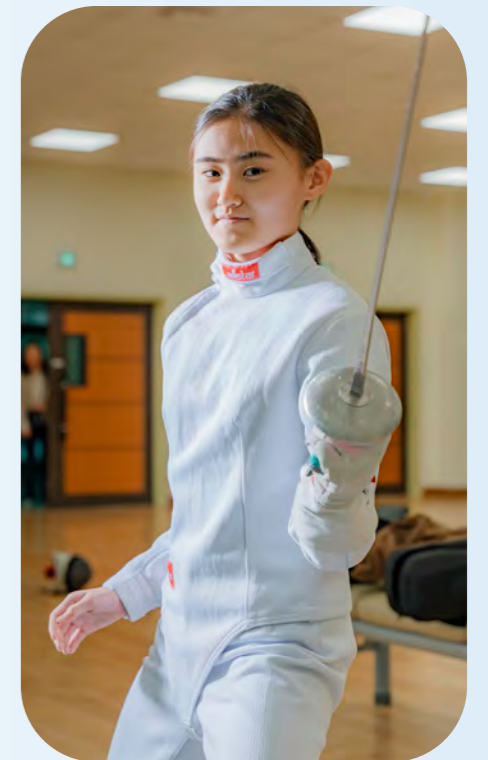
처음 펜싱부에 들어왔을 때는 언니들이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정말 다정하고 재미있어요. 특히 제가 서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먼저 다가와 세심하게 알려줘서 늘 감사해요.

Q. 플뢰레 종목의 매력과 자신의 강점을 알려주세요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사브르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알아보신 클럽이 플뢰레를 하는 곳이라 플뢰레를 시작하게 된 건데, 사브르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재밌어요. 저는 빠라드(수비)가 관창은 편인데, 실력을 키워서 아따끄(공격)도 같이 잘하고 싶어요.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지금 함께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과 다 같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임교빈 선수 · 2학년

축구로 하나 된 부·울·경!

제5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기장월드컵빌리지 축구장 일원에서 '제5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성과를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회 규모 확대, 협력 강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는 축구를 통한 생활체육 소통의 장 마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직장 체육동호회 활성화 도모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우선 참가 대상을 부산 관내 축구팀에서 부산·울산·경남 축구팀으로 범위를 넓혔고 대회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다.

대회에 앞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울산·경남 관내 공공기관과 체육회 유관단체 등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가 진행되었고, 3월 7일에는 부산광역시체육관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 및 대진표 추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25개 팀 60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대회는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전면을 활용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대회 진행

대회 1일 차인 3월 14일, 오전 8시에 32강(1~4경기) 사전 경기가 펼쳐졌다. 이후 오전 9시 20분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부산광역시 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되었고, 부산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개회선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의 대회사, 부산광역시 시장의 축사, 선수 및 심판대표의 선서, 기념 촬영 등이 이어졌다. 오전 10시부터는 32강(5~16경기) 경기와 16강 경기가 차례로 열렸고, 이날 경기는 오후 6시에 마무리되었다.

대회 2일 차인 3월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8강, 4강, 결승 경기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결승전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부산경



찰청이 올랐고, 부산지방우정청이 뛰어난 팀워크를 자랑하며 2대 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공동 3위는 해운대구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돌아갔다.

모든 경기가 끝난 오후 2시에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단체 및 개인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우승 팀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과 트로피, 준우승 팀에게는 70만원 상당의 상품과 트로피, 3위 팀에게는 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과 트로피가 주어졌다. 또한 우승 팀에서 최우수선수 1인, 준우승 팀에서 우수선수 1인, 공동 3위 팀에서 페어플레이 선수 2인을 선발하여 트로피를 시상하였다.

대회는 철저한 준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대회의 안전 운영을 위해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한 구장별 운영요원 배치 및 예비 구급차 배치 등 별도의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였다. 덕분에 참가자들은 더욱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팀원 간 친목과 지역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에 격려를 전하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과 지역 통합의 흐름 속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상생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러너들의 새로운 성지,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오픈

글.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정상우

3월 29일, 다대포에서 러너들의 새로운 아지트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식'은 단순한 시설 오픈을 넘어, 부산의 러닝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뜨거운 관심 속 진행된 개소식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식은 다대포해변공원 내에서 형형색색의 러닝복을 입은 러닝 크루 회원들과 건강한 활기를 찾는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의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사를 찾은 사람들의 질문에 부산광역시 시장이 답하는 형식의 '러너토크'가 진행되었다. 러너토크를 통해 생활체육에 관한 질문부터 마라톤 대회 관련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그중 12월에 있을 부산국제마라톤을 계기로 해당 대회를 국내 최고의 국제 마라톤 대회로 만들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이 주목받았다.



행사장에는 스포츠 브랜드들의 홍보 부스를 비롯해 각종 이벤트 공간이 마련되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공했다. 특히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운영한 전문 체험 부스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폐활량 측정을 통해 자신의 폐활량 상태를 점검하였고, 순발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였다. 부상 방지를 위한 테이핑 교육도 진행되었는데, 어느 프로그램보다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부산 러닝 문화의 새로운 물결

전문 트레이너들의 지도 아래 진행된 러닝 자세 교정 및 스트레칭 시간도 있었다. 초보 러너들에게는 올바른 습관을, 숙련된 러너들에게는 부상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러너들을 위한 공간 탄생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사전 신청으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km 오픈런 행사가 이어졌다. 오픈런 참가자들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출발하여 강변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즐겁게 달렸다.

시민들의 열정이 어우러졌던 이번 개소식은 부산이 '러닝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의 시작점이었다. 현장에서 보여준 러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부산이 세계적인 러닝 도시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음을 증명했으며, 앞으로 건강한 변화의 물결이 부산 전역에 막힘없이 뻗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러너지원공간에는 탈의실, 거울, 물품보관함, 정수기, 신발 소독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입장 전 네이버 QR코드 인증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신동진, 「스포츠 정신의학: 스포츠 선수도 정신질환이 생긴다」, 『스포츠과학』 제163호, 한국스포츠과학원, 2023.05

Goutteborge, V., et al., 「Mental health symptoms in elite athletes and coaches」, 『BMJ Open Sport & Exercise Medicine』 Vol.10 No.3, BMJ Publishing Group, 2024.09

‘헝그리 정신’ 같은 소리는 이제 넣어 두세요

스포츠 멘탈 관리,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아주 오래전부터 스포츠 선수들에게 강인한 멘탈은 기본 덕목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내야 한다며 감독도, 대중도, 선수 스스로도 ‘헝그리 정신’을 강조했다.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채찍질하는 분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니었다.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등 미국 유명 농구 선수들의 멘탈 코치인 팀 그로버는 ‘강인한 육체는 탁월한 선수를 만든다. 강인한 정신은 세상 무엇도 막지 못할 불굴의 승부사를 만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너도 나도 강인한 정신력만을 강조하는 사이, 놓치고 있던 한 가지를 짚어보려 한다. 바로 강인한 정신력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멘털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

사실 멘털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육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평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테다. 이 말을 달리 보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인생 곳곳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한편, 스포츠 경기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선수들이 정신 건강학적으로 받는 압박은 일반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압박감은 어린 시절부터 경쟁적으로 운동하고, 성적에 따라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는 성장 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엘리트 선수가 되어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일반인과 비교해 이른 은퇴 시기가 결정적이다. 종목별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은 선수가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10대에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이 30대에 은퇴하기까지, 운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끝없이 경쟁하고 성적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 건강은 취약해지기 쉽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멘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멘



털 관리가 선수 생명을 좌우하는 셈이다.

운동선수 10명 중 7명 “정신적 고통 겪었다”

선수들이 운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네덜란드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J 오픈 스포츠 및 운동 의학(BMJ Open Sport & Exercise Medicine)'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선수 73%, 코치 41%가 “운동과 연관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엘리트 운동선수 156명과 코치 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도 선수들의 정신 건강에 주목한다.

IOC는 해마다 스포츠 관련 주제를 정해 논문을 발표하는데 지난 2018년에는 정신 건강을 다뤘다. 이 논문에서 IOC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 및 질환을 11가지 카테고리과 세부 내용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수면 문제, 우울증, 자살,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섭식 장애,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들이 포함됐다. 실제 정신 건강 관련 유병률에서도 선수들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스포츠 선수가 거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겪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 거식증으로 잘 알려

진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 일반인

유병률은 0.4%이지만 운동선수

는 13.5%로 30배 이상이다. 특

히 여자 운동선수는 20%가

거식증을 경험한다. IOC는 연

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

하고 지원하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제32회 도

쿄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

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헝그리 정신 대신

체계적인 멘털 관리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스포츠 멘털 코치도 등장했다. 이들은 선수들의 멘털을 관리하고 문제 해결을 도우면서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 안세영부터 신유빈, 차준환, 페이커까지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스포츠·e스포츠 선수들은 이미 멘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멘털 코치를 따로 두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단위에서도 멘털 코칭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1호 멘털 코치로 유명한 박철수 코치는 제23회 평창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팀 ‘팀 킵’을 코칭하며 은메달 획득이라는 결과를 냈다. 제19회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에서도 멘털 코치의 진가가 빛났다. 국내 e스포츠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던 김관우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심리 코치(멘털 코치)가 멘털 관리를 도와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며 멘털 코치를 공식 언급했다.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도 멘털 코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창단한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프로 스포츠 구단 역사상 최초로 멘털 코치를 임명한 바 있다. 현재는 많은 구단에서 컨디션 코치가 멘털 관리를 겸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팀 대부분이 멘털 코치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마이너리그에서

도 확대되고 있다.

선수의 멘털을 쥐어 짜내던

‘헝그리 정신’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경기력

과 선수 생명을 좌

우하는 멘털 관리

의 중요성이 대

두되었고, 멘

털 코칭의 시

대를 열어젖혔다.

멘털 관리의 중

요성을 말할 때

마다 회자되는

선수가 있다. 지

난 제31회 브라

질 리우데자

네이루 하계

올림픽 남자 펜

싱 에페 결승에서의 박상영 선수다. 당시 4점을 뒤진 상태였던 박 선수는 “할 수 있다”라고 읊조리며 멘털을 부여잡고 5점을 내리 따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때 저 멀리서 박 선수에게 “할 수 있다”라고 외쳐줬던 이가 있었는데, 펜싱팀 코치였다. 선수의 멘털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선수의 잠재력을 믿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멘털 관리, 멘털 코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헝그리 정신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선수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면?

자전거 탈 때 챙겨야 할 안전 수칙

누구나 자전거와 관련된 추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다. 보조 바퀴를 떼고 처음 두발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기억, 친구들과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내기하던 기억. 자전거 하나에 추억 하나가 담겨 있는 셈인데, 이렇게 소중한 자전거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이제는 보조 바퀴가 없으니까

어릴 적엔 고작 세발자전거나 보조 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를 타는 데도 보호 장비로 무장한 기억이 있을 테다. 이제 보조 바퀴와는 헤어졌지만, 보호 장비만큼은 함께해야 한다. 그중 헬멧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헬멧을 ‘쓰기’만 한다면 안 쓴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헬멧을 올바르게 쓰는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 위에 수평으로 쓰고, 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한다. 둘째, 턱끈이 제대로 조여졌는지 확인한다. 셋째, KC마크가 부착된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한다. 넷째, 3년 주기로 헬멧을 교체한다. 헬멧을 올바르게 썼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머리부상은 최소 45%, 뇌부상

자료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행복나눔



은 33%,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은 29%나 줄일 수 있다. 탑승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면, 다음으로는 자전거가 전조등, 반사장치 등 안전 장비를 장착할 차례다. 특히 늦은 밤이나 흐린 날 라이딩을 할 때 이런 장비들은 필수이다. 안전 장비는 전방 시야 확보를 도와주는 동시에 다른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작은 불빛 하나가 도로 위 모두를 안전한 길로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NO, 이어폰 NO!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자전거도 엄연한 차량이기 때문에 음주 후 탑승이 금지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이 음주 후 자전거 운전 경험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자전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니, 자전거 음주 운전 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음주’만큼 위험한 것이 ‘스마트폰’ 및 ‘이어폰’ 사용이다. 스마트폰 사용 시 운전자의 시야각은 120도에서 40도로 줄어들고, 가시거리도 30m에서 5m로 감소한다. 즉 스마트폰을 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은 격투기의 ‘노가드’ 상태에 놓인 것과 다름없다. 누군가에게 무작정 돌격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상대에게 부딪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어폰 사용 역시 위험이 뒤따른다. 스마트폰이 시각적인 알림을 차단한다면, 이어폰은 청각적 알림을 차단한다. 요즘 잡음이 차단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동차의 경적 같은 경고 신호를 듣지 못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는 ‘차마(도로교통법상 차와 우마를 합쳐 부르는 말)’이므로 도로상에서도 불시에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도로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페달을 마구 밟을 때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고 상쾌하겠지만, 그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안전한 라이딩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라이딩이다.

자전거 사고는 주로 ‘자전거인데 뭐 어때’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부주의가 모여 한 해 5,571건(2024년 기준)이라는 사고를 일으켰고 7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만약 안전 수칙 중 하나라도 지켰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빠른 속도, 가벼운 복장, 즐거운 미디어는 잠시 내려놓자. 처음 보조 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탔던 그때처럼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탄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안전 수칙,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올바른 방법으로 헬멧 쓰기
- 야간운행에는 라이트 켜기
- 음주 운전 금지
-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 안전속도 지키기



2002 부산아시아경기 폐막식

자료 출처: 부산체육 50년사

Ready, Set, Go

부산, 글로벌 메가스포츠의 중심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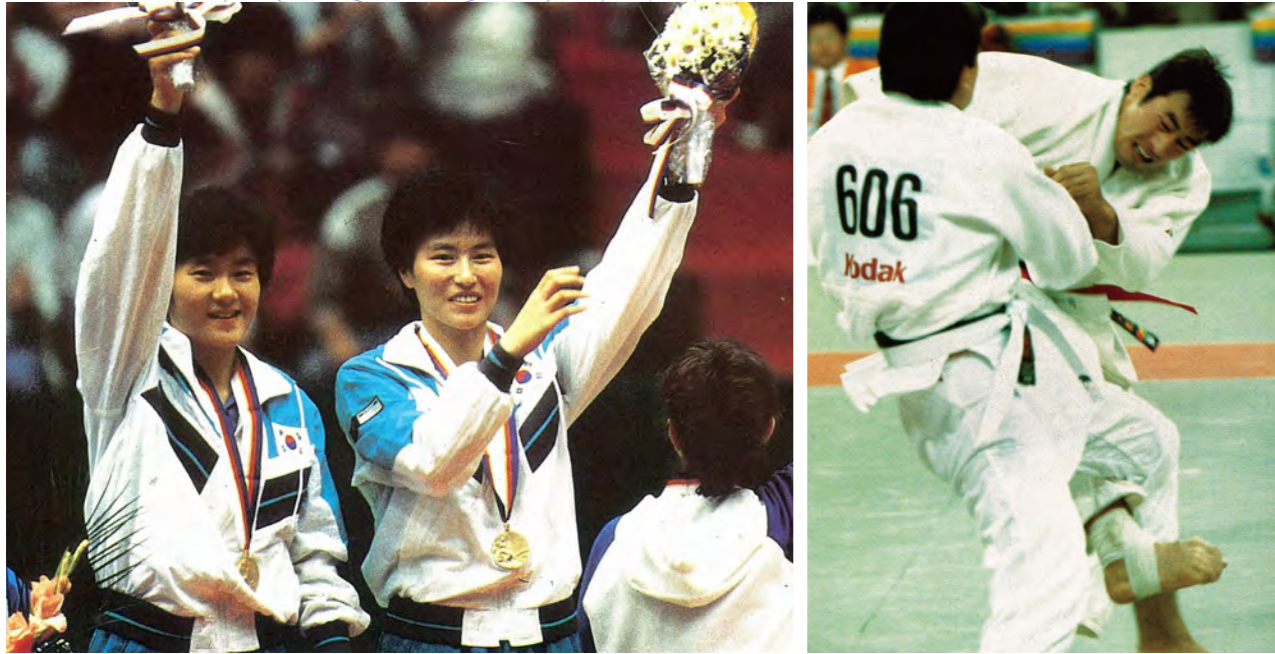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도약을 이루던 시기, 그 든든한 토대에는 언제나 '부산체육'의 멈추지 않는 도전 DNA가 자리하고 있었다.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며 국제 대회의 내실을 다진 부산은, 열악한 지역 경제와 주변의 우려라는 난관을 딛고 기어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라는 기적을 일궈냈다.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와 시민의 끈질긴 독심으로 일궈낸 놀라운 성취,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가스포츠 도시'로 완벽하게 부활(ReBirth)한 부산의 가슴 뛰는 연대기를 되짚어본다.



부산체육, 한국 스포츠에의 기여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대회에서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한국 체육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양정모 선수는 1978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도 제패하며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를 기록했고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한국의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 시도는 개최국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에 반대하는 보이콧 행렬에 한국이 동참하며 불발됐다.

올림픽 출전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참 결정으로 한국 체육계는 오히려 금메달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게 됐다.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올림픽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체육계에서는 대회의 성공적 운영은 물론 준수한 성적 달성도 목표로 삼았다. 1948년 런던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이래 한국은 30여 년 동안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8개를 획득한 것이 전부였던 터라, 개최국으로서의 체면치레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부산은 아시아권에서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육상 종목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1982년 LA올림픽대회에서 부산선수들은 유도 95kg급 하형주 선수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레슬링 자유형 48kg급에 출전한 손갑도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했으며, 여자 농구의 김화순 선수 등도 활약했다. 같은 해 9월에 치러진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이 8승 1패의 전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기에 출전한 최동원, 심재원, 임호균 등 부산 출신 실업선수들이 특히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이어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는 4강 진출이라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한국 체육계가 성과를 절실히 필요로 하던 시기에 부산선수들이 활약함으로써 갈증을 해소해준 것이다.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올림픽대회, 그리고 부산

1986년, 건국 40여 년이자 반만년 한민족 역사상 대업으로 불리운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됐다. 식민지배, 남북 분단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딛고 쌓아온 저력을 선보인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고 2년 후 개최될 88 올림픽대회의 시험 무대 성격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중요성이 더했다.

한국은 25개 종목에 495명(임원 106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65개의 금메달과 종합 3위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선수들의 기량과 의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까지 인구 11억 명의 중국과 순위 경쟁을 하며 93개에 이르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종 순위는 2위에 그쳤지만 3위인 일본과 큰 차이를 났다. 부산체육의 값진 성과는 탁구에서 나왔다. 광성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남규 선수는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우던 중국 탁구를 무너뜨리고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안재형, 현정화, 이선 등 선수들이 남녀 탁구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부산 탁구의 저력을 과시하는 한편 88 올림픽 대회에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탁구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켰다. 선수들의 활약 외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수많은 체육인들을 각 종목의 경기 담당관, 심판 등으로 파견하는 한편 서울 외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종목 경기장을 운영했다. 특히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요트와 보트를 동시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개최된 요트종목 전 경기를 완벽히 소화했다. 이후 수영만요트경기장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와 연중 해양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부산의 명물이자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됐다.

부산, 메가스�포츠 도시로의 ReBirth

1980년대,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부산의 체육계 역시 눈부신 도약을 이뤘다.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로서 양 대회의 성공에 기여했고 요트와 축구 경기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했다.

하지만 부산의 인프라, 시민들의 열기에도 1976년 제57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대회 개최 성과가 없었다. 그 시점에 부산 지역의 체육계 인사들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라는 의제를 들고 나섰다. 1992년 당시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단체전무이사협의회 권중현 회장이 그 시작이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한 그는 부산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공식 제의했고 김진재 당시 국회의원 등도 대회 유치의 꿈을 지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곧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부산은 주력산업이 사양세에 접어들고 도시성장이 정체되어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시의 재정자립도 또한 낮았고 대회 개최에 앞서 해결해야 할 교통, 관광 인프라 문제도 산적한 가운데 ‘국제대회경기 유치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추진 동력을 잃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부산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체육계를 중심으로 시의회, 지역사회 등에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유치전에 뛰어 들 수 있었다. 경쟁도시인 대만의 가오슝이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어 유치전을 준비하는 부산과 달리, 가오슝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대만 총통이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전세기로 중동을 오가는가 하면 막대한 금품과 선물 공세로 부산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OCA 현지 실사단은 부산이 이미 확보한 경기 시설과 추가 확보할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의 유치 열의에 높은 점수를 줬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를 결정할 제14차 OCA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부산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

결정 당일, OCA 41개국 위원들이 투표장소로 집결해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37 대 4. 예상을 뒤엎은 부산의 완승이었다. 유치 성공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달되자마자 국내외 수많은 보도진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유치 대표 단장은 만세삼창을 외치며 부산의 승리를 축하했다. 이로써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의 염원을 실현한 부산은 21세기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2002년의 기적,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스�포츠 메카로 만든다

부산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자 국제도시로서 부산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쾌거였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진 시점에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국가적 염원으로 발화시킨 부산체육계의 입장에서 더 없이 감격적인 성과였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와 개최는 단순한 국제 대회를 넘어, 부산이라는 도시의 운명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지역 체육계의 선구안과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빚어낸 이 쾌거를 통해, 부산은 세계적인 수준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날의 환희와 찬란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 ‘메가스�포츠 도시 부산’을 지탱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체육 DNA로 살아 숨 쉬고 있다.

밤을 밝힌 테니스 열기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 개최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이승빈



빠르게 오가는 공과 경기에 집중된 선수들의 모습에 긴장감이 감돌았던 경기장. 늦은 밤까지 선수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다녀왔다.

지난 3월 27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이 주관하였으며, 남자신인부 경기와 여자개나리부 경기가 진행되는데 남자신인부 경기가 3월 27일에 진행되었다.

남자신인부 경기 현장의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찾았다. 남자신인부 경기는 20세 이상 부산 지역 남자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수 출신 및 일부 대회 입상자는 출전할 수 없다. 모든 경기는 6게임 선승제로 진행되고, 5대5 동률 시 타이브레이크로 승부를 가린다.

경기장에는 선수들이 일찌감치 모여 경기를 준비하는 등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킨 한편 코트 곳곳에서 경기 시작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기도 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각 코트에서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일부 경기에서는 긴 랠리가 이어지며 팽팽한 승부가 전개되었고, 접전 끝에 승부가 갈리는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연출됐다. 경기를 지켜보던 관객들은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고, 특히 긴 랠리가 이어질 때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한 관객은 “생활체육 대회지만 선수들의 실력과 경기 몰입도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현장에서 보니 더욱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갖고뒀던 실력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동호인 대회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 경기가 진행되었다. 테니스를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인 만큼 코트 안에서는 열정이 넘친 것과 동시에 코트 주변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경기 중간중간 참가자들끼리 격려의 말을 나누거나 박수를 보내는 모습에서 생활체육 대회만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경기에도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남자신인부에서는 효원 소속 신진호와 넘버원 소속 이대성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라이징 소속 유지현·임진오 팀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공동 3위는 청춘불패 소속 김무원·이석민 팀과 부산불나비 소속 맹도영·윤희성 팀이 이름을 올렸다.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 남자신인부 경기는 단순한 대회를 넘어 부산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부산 지역 생활체육 테니스가 활성화되어 종목의 저변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다양한 연령대의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려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만 테니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대회의 즐거움을 나눴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를 통해 부산 지역 동호인 테니스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생활체육으로 테니스를 즐기길 기대한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홈그라운드 평정!

경남여중 배구부, 2년 연속 부산 대표 선발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류경

‘2026년도 부산 초·중학생 체육대회 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 선발전’ 배구 종목 경기가 열린 3월 8일, 부산 성지고등학교 체육관은 이른 아침부터 각 학교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체육관 내부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 도구와 현수막이 가득했고, 코트에서는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관중석의 뜨거운 함성이 어우러져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권이 걸려 있었던 만큼 선수들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강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특히 모두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던 여중부 결승전에서는 경남여자중학교와 부산여자중학교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결승 경기 시작 전부터 체육관 관중석은 두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배구 팬들로 채워졌고,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응원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체육관 전체를 울릴 정도로 대단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경남여중의 페이스로 흘러갔다. 경남여중은 작년 전국 챔피언다운 노련함을 바탕으로 강력한 서브와 빈틈없는 리시브 라인을 구축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부산여중 역시 끈질긴 수비 집중력을 발휘하며 추격의 불씨를 지폈으나, 경남여중의 높은 블로킹 벽과 전방위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양 팀의 결정적인 스파이크가 상대 코트에 꽂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천둥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 점 한 점 점수가 쌓일수록 학생 응원단은 북소리에 맞춘 질서정연하면서도 폭발적인 응원전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경남여중은 세트스코어 2대 0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승리를 확정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경남여중은 2년 연속 부산 대표 선발이라는 과거와 함께, 작년부터 이어온 공식 경기 ‘2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과 코치진의 전략적인 지도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끈 경남여자중학교 문지원 코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연승 기록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이 대견하다”라며 소회를 밝힌 데 이어 이번 승리가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을 것이라며 “올해는 특히 부산에서 전국 대회가 열리는 만큼,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경남여중의 저력을 전국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성지고등학교 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응원의 함성은 이제 전국 무대로 향한다. 부산 대표로 선발된 경남여중 배구부는 오는 5월에 전국 각지에서 모일 강호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정상 등극에 도전한다. 홈그라운드인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땀방울로 일궈낸 20연승이 전국 대회 2연패라는 화려한 정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펼쳐질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나비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쏜다! 부드러움의 극치 소프트테니스

살짝 움켜쥐면 부드럽게 놀리는 하얀 공. 우리가 주로 ‘테니스’ 하면 떠올리는 형광색 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소프트 테니스 공은 가볍고 말랑말랑한 것이 특징이며, 이 외에도 소프트 테니스는 테니스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다양한 기술로 보는 눈이 즐거워지는 소프트테니스에 대해 알아보자.

소프트테니스의 역사

소프트테니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에서는 개화기에 김옥균이 1883년 일본에서 도입했다는 설을 따른다. 당시 일본에서는 론 테니스(Lawn Tennis)를 기반으로 한 ‘연식 테니스’가 유행하고 있었다. 도입 초기에는 우리 고유의 ‘척서’라는 윷놀이에서 그 이름을 따와 ‘척구’라고 불렀으며, 이후 ‘정구’로 변형된다.

소프트테니스가 도입된 이후 대회도 활발히 개최됐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개화에 대한 욕구가 스포츠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1921년에는 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첫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대회는 제1회 전조선 연식정구선수권을 기점으로 여러 대회가 생겨난다. 1934년부터 1935년까지 일본과의 경기에서 여러 번 우승하기도 했는데, 식민지에 대한 울분을 스포츠로 풀어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942년, 일제의 ‘구기경기폐지정책’으로 정구는 광복 때까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민족의 설움을 해소해주었던 정구는 정부 수립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1948년 8월, 조선연식정구협회를 대한연식정구협회로 개칭하였다. 1953년 전까지는 대한테니스협회와 일체된 상태였으나, 1953년 9월 완전히 분리됐다. 이후 2019년 ‘대한정구협회’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정구’ 또한 ‘소프트테니스’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프트테니스 용어 소개

- ▶ 리시브 : 서비스된 볼을 반구(다시 부딪치게 하거나 계산하여 치는 것) 하는 행위
- ▶ 스매시 : 높은 볼을 각도를 크게 하여 세계 내려치는 것
- ▶ 랠리 : 서로 볼을 놓치지 않고 계속 치는 것
- ▶ 슬라이스 : 볼을 얇게 꺾어 회전을 주는 것
- ▶ 포치 : 상대 플레이어의 볼을 가로채는 것
- ▶ 네트 플레이 : 네트 근처의 플레이
- ▶ 포인트 : 스코어의 최소 단위
- ▶ 다이렉트 : ① 서비스 볼이 노 바운드로 리시버의 몸, 옷, 라켓에 맞았을 경우 리시버의 실포인트
② 치고 들어온 볼을 아웃 코트에서 노 바운드로 라켓으로 잡았을 때 실포인트가 되는 것
- ▶ 인플레이 : 서비스를 하고 나서 렛(LET, 처음부터 다시) 혹은 폴트(Fault, 규칙 위반)가 되거나 포인트가 결정되기까지의 사이

소프트테니스 기술

- ▶ 오버헤드 스매시 : 라켓을 머리 위로 쪽 뺀 상태에서 볼을 치는 기술
- ▶ 로브샷 : 고의로 높게 띄워 상대의 배후를 찌르기 위한 타구
- ▶ 점핑 스매시 : 높이 떠서 오는 공을 점프해서 내려치는 기술
- ▶ 발리 : 어택 발리, 하프 발리, 로우 발리, 하이 발리로 나뉘며,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넘기는 기술
- ▶ 커팅 서브 : 라켓 사이드로 볼의 옆면을 긁어서 쳐내는 것으로, 소프트테니스에서만 허용되는 기술
- ▶ 포핸드 스트로크 : 라켓을 든 손의 방향으로 지면에 닿기 전 공을 타격하는 동작
- ▶ 백핸드 스트로크 : 라켓을 든 손의 반대 방향에서 타격하는 동작



커팅 서브



백핸드 스트로크

소프트테니스 경기 방식

매치는 7회 게임제 또는 9회 게임제 형식으로 한다. 매치는 두 사람이 한 조를 편성하고, 각 선수는 1개의 라켓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라켓을 양손으로 번갈아 사용해도 무방하나 한 면으로만 쳐야 한다.



게임의 승패

- ▶ 4포인트를 먼저 득점하면 해당 게임을 이긴다.
- ▶ 단, 양쪽 조가 3포인트가 되었을 때는 듀스가 되고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① 듀스 이후 1포인트를 득점하면 그 조가 어드벤처이지(유리한 위치)가 된다.
 - ② 그 후, 어드벤처이지 조가 1포인트 더 득점하면 게임에서 승리한다.
 - ③ 다른 조가 득점 시, 듀스 어게인이 된다.
 - ※ 듀스: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점수에서 양 조가 동일하게 1점씩 모자란 상태를 말하며, 소프트테니스에서는 쌍방 조가 3포인트일 시 듀스가 된다.

게임 규칙

- ▶ 서비스(공을 사용해 경기 시작을 알리는 기술)는 서비스하는 선수의 손에서 공이 떠난 순간(토스하는 순간)부터 볼이 코트에 떨어지는 순간에 끝난다. 이때 공을 헛치더라도 맞은 것으로 인정한다.
- ▶ 선수는 네트를 향해 마주 보며, 서비스를 넣는 쪽을 '서버', 리시브를 받는 쪽을 '리시버'라고 한다.
- ▶ 서비스 선수는 한 사람이 네트를 향하여 센터마크 우측으로부터 시작하여 좌우 교대로 대각선상에 있는 상대방의 리시브 구역 안으로 공을 넣는다.
- ▶ 두 명의 선수는 동일 게임 중 2포인트씩 교대로 서비스를 넣는다. 서비스 순번은 경기 중 바꿀 수 없다.
- ▶ 리시브는 라이트 서비스 코트에서 실시하여, 좌우 교대로 한다.

소프트테니스와 테니스 점수 용어 차이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0점: Zero	0포인트: 0(Love)
1점: One	1포인트: 15(Fifteen)
2점: Two	2포인트: 30(Thirty)
3점: Three	3포인트: 40(Forty)
4점: Four	

소프트테니스 VS 테니스

구분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라켓 무게	250~270g	270~320g
공 무게	30~31g	55~59g
공의 색깔	흰색	연두색
공의 질감	부드러움	딱딱함
점수 표기 방식	4점을 따면 한 게임 승리	6게임 이기면 한 세트 승리
중앙 네트 높이	1.07m	0.91m
주로 쓰는 신체 부위	손목	어깨
라켓 타격 부위	한 면만 사용 가능	양면 사용 가능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효자종목, 소프트테니스

소프트테니스는 우리나라 효자종목 중 하나다. 비록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현재 대한체육회 56개 종목 중에서 태권도, 양궁, 유도, 쇼트트랙 다음으로 연금 수혜자가 많다. 한국은 2003년 일본 히로시마, 2007년 경기 안성, 2011년 경북 문경, 2015년 인도 뉴델리 세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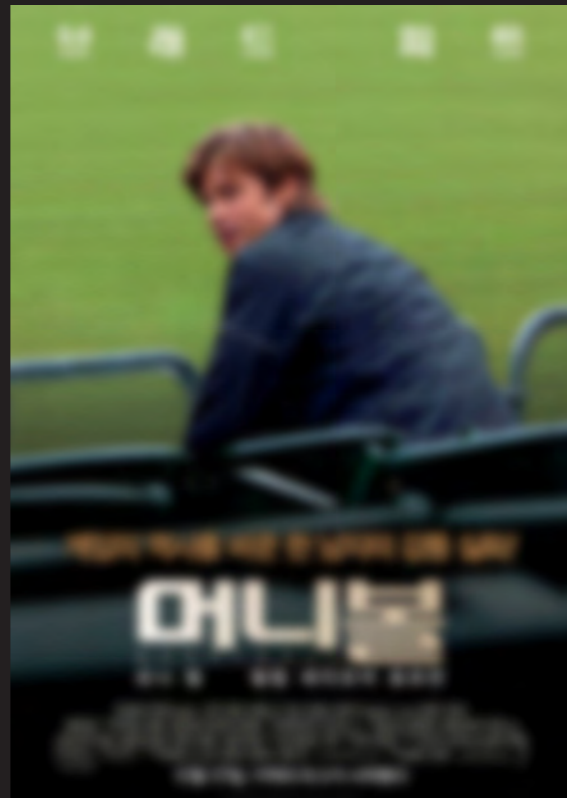
- 기록**
-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 7개, 🏆 1개, 🥈 4개 획득
 - ▶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 2개, 🏆 2개, 🥈 2개 획득
 - ▶ 2019년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 2개, 🏆 4개, 🥈 3개 획득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소프트테니스 세부 종목은 총 7개였고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세부 종목이 5개로 줄었음에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소프트테니스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부산선수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복식 남자일반부에서 금메달을, 여자일반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다른 효자종목 못지않게 실력을 발휘할 소프트테니스.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부산선수들의 모습도 기대된다.

확실한 방법을 찾았다면 의심하지 마라

영화 <머니볼>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baseball?”

스카우터의 감이 전부였던 시대, 한 남자가 조용히 스프레드시트를 꺼내 들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로.

숫자가 보여준 다른 세계

지금 우리 사회는 데이터 집약의 사회다.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정보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2011년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은 데이터를 활용해 야구단을 새롭게 꾸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1995년, 오克兰드 애슬레틱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구단이었다. 시즌이 끝날 때마다 공들여 키운 핵심 선수들은 더 높은 연봉을 따라 떠났고, 단장 빌리 빈(브래드 피트)은 그 빈자리를 채울 돈도, 보족한 수도 없었다. 당시 구단 스카우터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경험과 감을 앞세워 선수를 영입했다. 타자의 스윙이 아름다우니, 투수의 폼이 믿음직해 보이는지를 오직 눈으로 짚어내는 것이다. 이에 빌리 빈은 회의실에서 점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긴 고민 끝에 예일대 출신의 젊은 통계학자 피터 브랜드(조나 힐)를 영입한다. “당신들은 야구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수의 가치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브랜드가 말하는 핵심이었다. 그가 주목한 숫자는 타율이나 홈런이 아닌 ‘출루율’이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서 베이스를 밟는 능력. 당시 야구 시장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덕분에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의 몸값은 의외로 낮았다. 빌리 빈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나이가 많거나, 부상 이력이 있거나, 폼이 영 어색하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출루율만큼은 높은 선수들을 저렴하게 영입한 것이다.

탐구하는 자, 판을 바꾸다

물론 구단 내부의 반발은 거셌다. 오랜 경험을 자랑하는 스카우터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감독은 빌리 빈이 짜놓은 라인업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물러섬이 없었다.

“부유한 팀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의 게임을 해야 합니다.”

빌리 빈은 데이터가 말하는 방향을 끝까지 주장했다. 감독에게 직접 압력을 넣고, 말을 듣지 않는 선수는 과감히 내보냈다. 냉정해 보이는 결정들은 언제나 꼼꼼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윽고 믿음은 결과로 증명됐다. 오克兰드 애슬레틱스가 아메리칸리그 역사상 최초로 20연승을 기록하며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것이다.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 연봉 총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룬 쾌거였다. 오늘날 세이버메트릭스, 즉 야구 통계 분석학은 메이저리그 전 구단의 필수 도구가 되었다. 빌리 빈이 처음 그 방식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비웃음을 샀지만, 지금은 데이터 분석 없이 선수단을 운영하는 구단을 찾기 어렵다. 스포츠를 넘어 의료, 금융, 교육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머니볼>의 정신이 야구장 밖에서도 여전히 녹아 있는 셈이다.

<머니볼>의 사례처럼 혁신은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조용히 물음표를 붙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에게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고 있는가. 예전부터 지켜왔던 오랜 관습인지, 아니면 데이터가 새롭게 가리키는 방향인지. 더 나은 선택은 언제나 더 깊은 탐구에서 비롯된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해단식 개최

부산광역시, 총 36개 메달로 종합득점 524점 기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4월 2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 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해단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부산광역시 김완상 체육국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권혁제 교육국장을 비롯해 동계 회원종목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지난 2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 대회에 부산선수단은 6개 종목, 총 260명(선수 162명, 지도자 및 임원 98명)이 참가했다. 선수단은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금메달 10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4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합점수 524점을 기록하며 19

년 연속 종합 5위를 유지하고, 6대 광역시 중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부산 동계종목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해단식에서 최우수 선수(MVP)로는 ▲클래식 ▲프리 ▲복합 ▲스프린트 종목에서 4관왕을 달성한 오신비(광남초등학교),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가 선정되었으며, 종합 입상 종목 및 우수 선수 육성에 기여한 학교·협회에는 표창패를, 뛰어난 지도력과 성과를 거둔 지도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과거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였던 부산이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에 이제는 어엿한 동계스포츠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선수 육성과 최적의 훈련 환경 조성 등 동계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 부산-정주 청소년 스포츠 교류 실행협의회 진행

부산, 중국을 시작으로 스포츠 교류 및 스포츠산업 확장 교두보 마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3일(월)부터 28일(일)까지 6일간 중국 하남성 정주시를 방문하여,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 개최 등 양 도시 간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선진 시스템 공유 등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중국 하남성 정주시와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부산시 중점추진과제인 '국제 스포츠 허브도시 기반 강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지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추진하는 '국제스포츠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중점 과제에 맞추어 일본에 국한된 국제 스포츠 교류 사업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발점이자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를 통해 스포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여 상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번 실행협의회에서 하남성 외사판공실로부터 스포츠 교류를 위한 행정(외교)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하남성(정주시) 소중고 학생체육총회와는 부산 우수지도자 파견과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등 지도자·

선수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주시는 올해 7월 중 5종목 300명 이상 규모로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시 선수들과 교류대회를 시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부산 교류단이 정주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정주시 체육산업연합회, 하남성 축구협회, 하남성 실험중학교 등 유관기관과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정주시 올림픽센터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아파소림 무술학교 운영 프로그램 참관과 교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양 도시가 공동 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더불어 IP(지식재산)를 구축하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행정·문화·관광 등 교류 다변화를 통한 상생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실행협의회는 중국과의 첫 번째 교류일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진출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의미가 크다”라며, “양 도시 간 스포츠 교류가 한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우호 증진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상생하기를 바라며,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 '2025년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평가' 우수 기관 선정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성 입증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실시한 '2025년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평가'에서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부산체육의 과학적 위상을 드높였다.

신규 센터가 운영 안정화 단계를 거쳐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지만,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2023년 2월 개관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간에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스포츠과학교실, 현장 지원 및 밀착 지원, 우수 사업 사례 성과와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스포츠 헬스케어센터 연계를 통해 종목 맞춤형 체력강화훈련과 회복프로그램, 부상관리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 선수 맞춤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훈련 처방 및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과학 지원 내실화를 이룬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2025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시가 5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추진하는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공모에 전국 최초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스포츠과학 기반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등록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 학생의 약 30%가 엘리트 선수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스포츠과학 인프라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꿈나무 선수 발굴과 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영재 육성 협업 시스템은 성공한 영재 육성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외에도 '2025년 지역스포츠과학 거점운영 워크숍 BP경연대회(운영 모범사례 발표)'에서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우수 성과 사례 발표를 통해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개관 3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센터장을 비롯한 전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부산선수 및 지도자들이 보내준 신뢰가 만든 결실이기기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스포츠과학 기반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산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미래 스포츠 인재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구체육회

2026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작

중구체육회는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생활체육교실은 중구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다양한 시간대로 구성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실제로 참여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로써 중구체육회는 2026년 첫 사업을 힘차게 시작하였다.



서구체육회

'구덕정 개정 53주년 및 리모델링 기념 상사대회' 개최

3월 22일(일), 서구에 위치한 구덕정에서 부산광역시서구공동협회 주관 '구덕정 개정 53주년 및 리모델링 기념 상사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하여 구덕정의 역사와 새 출발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구덕정은 지역 전통 체육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건강한 체육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구체육회

제8회 부산진구청장배 족구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3월 15일(일) 황령산레포츠공원 축구장에서 '제8회 부산진구청장배 족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약 450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백병원팀이 우승을, 한새60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참가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대회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동래구체육회

제12회 동래구 축구협회 회장기 족구대회 개최

3월 8일(일), 부산환경공단 수영환경공원 축구장에서 동래구 축구협회 회장기 족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많은 족구 동호인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각 부문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2026년부터 족구가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번 대회는 그 의미를 더했으며, 대회를 통해 족구 동호인들은 서로 화합하며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구체육회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 시작

동구체육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체육대학교실을 운영한다. 생활체육교실은 파크골프, 요가&마사지 등 7개 종목을 운영하며, 장수체육대학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라인댄스, 실버요가 등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목적이다.



영도구체육회

제21회 영도구볼링협회장배 대회 개최

3월 29일(일), 송도대림볼링센터에서 '제21회 영도구볼링협회장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영도구 볼링 동호인 6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 속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경기장은 응원과 환호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쳤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남구체육회

2026 청소년체련교실 및 2026 어린이체능교실 개최

남구체육회는 3월 22일(일), 3월 29일(일) 대구 스파크랜드에서 '2026 청소년체련교실' 및 '2026 어린이체능교실'을 각각 개최하였다. 스포츠테마파크 체험을 통해 남구 관내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아이들은 신학기 학급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북구체육회

제9회 부산 북구 축구협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3월 22일(일), 화명동 족구전용구장에서 '제9회 부산 북구 축구협회장배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것을 넘어선 화합의 장으로서, 참가자들은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 결과, 부산 JC(A)가 우승, 상신이 준우승, 부산JC(B)가 3위를 차지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

제5회 해운대구청장배 주짓수대회 개최

3월 22일(일),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제5회 해운대구청장배 주짓수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으며, 대회에 참가한 100여 명의 선수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치열한 경기 끝에 동천백산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플레어, 3위는 팀매드가 수상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20회 사하구족구협회장배 초청족구대회 개최

3월 22일(일), 사하구에 위치한 환경공단 축구장에서 '제20회 사하구족구협회장배 초청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사하구족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족구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과 체력 증진, 그리고 동호회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뜻한 봄기운 속에 진행된 대회에 사하구 내 여러 클럽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연제구체육회

2026년 제30회 연제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 개최

3월 1일(일), 배드민턴협회 동호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제30회 연제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정정당당하고 열정적인 플레이로 경기에 임했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경기 결과, 우승은 거성클럽이, 준우승은 가온클럽, 3위는 연제클럽이 차지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6 수영구볼링협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개최

'2026 수영구볼링협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는 약 한 달간의 예선 진행 후 3월 29일(일) 대연 김스볼링센터에서 본선 경기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볼링협회 임원 및 8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본선 경기는 경기 내내 열띤 응원과 박수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B U S A N S P O R T S C O U N C I L



금정구체육회

2026년 생활체육 시즌 성공적인 시작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3월 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대회를 시작으로 금정구배구협회장배 대회, 금정구탁구협회장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생활체육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힘차게 알렸다.

각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며 생활체육의 의미를 한층 빛냈다. 금정구체육회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속도감과 추진력을 더해 더욱 활기차고 완성도 높은 시즌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강서구체육회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연날리기 체험 행사 진행

4월 3일(금)부터 4월 5일(일)까지 개최한 '제9회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 기간 중 강서구체육회가 주관한 벚꽃 걷기대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연날리기 체험 행사에 많은 가족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유소년에게 기초체력 증진과 건전한 사회생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 화합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진행되었다.



사상구체육회

제22회 사상구 협회장기 탁구대회 개최

3월 29일(일), '제22회 사상구 협회장기 탁구대회'가 다누리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상구 협회장기 탁구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성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장군체육회

2026년 무주군체육회 & 기장군체육회 자매교류행사 개최

3월 21일(토)과 22일(일), 기장군체육회와 무주군체육회가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일원에서 체육 교류대회를 가졌다. 두 지역 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두 지역 체육인과 동호인 등 4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21일에 개회식을 진행한 후, 22일에는 월드컵빌리지 등지에서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총 8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며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기구 교체 및 다목적실 거울 설치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서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서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헬스장 기구를 교체하고 다목적실에 거울을 설치하였다.

노후화된 헬스 기구를 최신 기구로 교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헬스 회원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실에 거울을 설치하여 댄스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더욱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02 북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환경개선사업 후 재개관

북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월 1일(수) 재개관하였다. 이번 사업은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됐다. 공사를 통해 수영장 내부 환경 전반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임직원은 재개관을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03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 환경 개선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탈의실 옷장 일부를 교체하였다.

이번 교체 작업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잠금장치가 불량한 옷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체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옷장 교체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개선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체육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4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 개최

2025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올빼미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대회는 부산 유일 야간에 진행되는 특색있는 대회로, 부산 테니스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월 27일(금) 18시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남자신인부 64팀(128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우승은 신진호와 최대성이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우지현과 임진오, 3위는 김무원, 이석민, 맹도영, 윤희성에게 돌아갔다.

05 부산실내빙상장



동계올림픽 특별 체험반 운영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2월 21일(토)부터 3월 1일(일)까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특별 체험반을 운영하였다. 특별 체험반은 쇼트 및 피겨스케이팅 2개 반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40여 명의 어린이가 스케이팅 기초 동작을 익혔다. 특별 체험반에서 빙상 종목에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보인 몇몇 어린이는 3월 정규강습 신청을 통해 빙상 꿈나무로서 강습에 임하고 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누구나 쉽게 빙상 종목을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특강 및 체험반을 개설하여 빙상장 이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06 신평장림체육관



봄맞이 체육관 외곽 청소 실시

신평장림체육관은 봄맞이 시설·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체육관 외곽 청소를 실시했다.

건물 외벽, 출입구 주변 및 주차장 일대 등을 중심으로 낙엽과 쓰레기를 정리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다. 특히 회원 통행이 잦은 구역을 철저히 정비하는 등 시설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환경 정비를 통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01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2026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복식 3위 입상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최근 경상북도 김천에서 개최된 '2026 김천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에 참가하였다.

클럽 소속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8세부 복식 종목에 출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최종 3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선수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킨 결과로, 유소년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는 클럽의 운영 방향이 결실을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소년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고, 전국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 환경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02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농구팀,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

2025년 창단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농구팀이 창단 1년 만에 '2026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부산 대표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2025년에 축구와 농구 등 구기 종목 팀을 창단하며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축구 종목 역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선발전에 참가해 16강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장산초등학교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종 준우승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개인 종목인 수영에서도 꾸준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수영 선수 중 5명이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이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팀과 스포츠클럽 기반 선수 육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구기 종목과 개인 종목을 균형 있게 육성하며 지역 스포츠클럽이 전문 선수 육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2026년 단체구기종목 과학화훈련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발굴을 이어가며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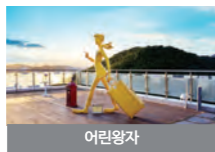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스폰서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https://awesomestar.co.kr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군 창녕읍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mbesteel.com>



부산시 사상구 광정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orea.com>



부산시 사상구 혁정동 718-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jilsteel.com>

국내 최초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개발기업 (주)인터오션



고압산소치료는 운동 후 회복,
재활은 물론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국내 150여개 병의원에 시스템 공급 운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안내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해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본인부담 없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세대주와 가족 / 2년마다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상자 확인 후 검진
- 신규검진대상 |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 4년에 한 번 실시 (남 24세, 여 40세)

암검진

본인부담 없음 or 10% 본인부담

짝수년도 출생자 중 아래 대상자

- 위 암 (40세 이상 · 2년주기)
- 유방암 (40세이상 · 2년주기)
- 간 암 (40세 이상 · 간암고위험군 · 6개월주기)
- 대장암 (50세이상 · 1년주기)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 2년주기)

※ 이미 공단 검진을 받으신 분은 해당 없음

SIMC **속바른내과의원**의 건강검진센터

✓ **5대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

내과 전문의 6인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 부인과 전문의 1인(여의사)

“국가검진 · 위 · 대장 내시경 · 정밀 초음파 · CT · MRI”

T. 246-0100 (내선번호 2번)

자갈치역 2번출구 앞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206-중-207407호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건설기업

동원개발그룹은 주거문화, 금융, 레저산업 및 수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입니다.



Since 1975년 | 전국 167차 사업장 87,000세대 공급

49년 쉬지 않고 달려온 신용제일의 기업 동원개발!
동원개발이 지으면 명품이 됩니다!

SKY.V 부산북항

SKY.V 센텀시티

SKY.V 우정역신

부산 냉정역 비스타동원 분양 문의 051)256-4500

2월 29일 OPEN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분양 문의 052)922-5000

4월 OPEN 예정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초우량 1군 종합건설기업!

AAA -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등급 AAA
- 나이스디앤비 신용등급 AA+
-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AA

전국 87,000여 세대 공급

부채비율 39.8% 단단한 1군건설사 (2022년)

48년 연속 흑자기업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코스닥상장 우량기업 (1994년 상장)

국내 최초 주택사업분야 금탑산업훈장 (1995년)

DW 동원개발

SKY.V | 비스타동원 | 동원로얄듀크 | 동원시티비스타

대표이사 회장 장복만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